‘써니’의 열풍 □에 있다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다’는 어느 영화의 카피처럼 ‘써니’는 ‘7공주’의 이름으로 뭉쳤던, 그래서 더욱 찬란했던 여고시절의 한 추억을 되새기며 한창 관객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복고가 대세다.

올 초 세시봉 열풍으로 시작된 7080 세대를 추억하는 복고 문화가 이제 영화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4일 개봉한 영화 ‘써니’(감독 강형철)가 23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 결과 관객 264만 명을 넘었다. 순제작비 60억 원이 든 ‘써니’는 손익분기점인 200만을 일찌감치 넘겼다. 특히 개봉 첫 주보다 3주째에 관객이 더 늘어나는 등 입소문의 효과가 커지고 있다.

‘써니’는 흔히 말하는 티켓 파워를 지닌 스타가 없다. 화려한 영상효과나 정교한 복선과 반전이 있는 영화도 아니다. 하지만 영화 곳곳에 배어 있는 아련한 추억을 적절하게 자극하는 다양한 코드가 보는 이를 80년대의 학창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즐거운 경험을 주고 있다.

●10대들이 만드는 80년대의 풍경

‘써니’는 ‘칠공주’파 여고생들이 25년이 흐른 뒤 다시 만나 학창시절을 추억하는 이야기다. 유호정·진희경 등 성인들의 사연도 나오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심은경·강소라 등 여고생들이 꾸미는 80년대 이야기다.

아이돌 스타로 상징되는 10대 연기자들이 과거로 돌아가 80년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써니’가 가진 가장 차별화된 매력이다. 요즘 유행하는 스키니진의 ‘원조’ 격인 원색의 청바지를 입고 ‘각’을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은 중·장년 관객에겐 향수를, 젊은 관객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준다.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소통이기도 하다.

사실 이런 재미는 ‘써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요즘 유행인 오디션 프로그램 MBC ‘위대한 탄생’에서도 자주 만난다. 백청강, 이태권 등 오디션 참가자들은 조용필 등이 불렀던 80년대 노래를 불러 시청률은 물론 자신들의 인지도까지 단숨에 끌어올렸다.

‘칠공주’파로 출연한 20대 연기자 민효린 역시 80년대 문화를 겪은 적이 없다. 그는 “비록 연기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보니 지금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느꼈다”며 “내가 매개체가 돼 그 때의 문화와 모습을 표현하는 건 흥미로운 경험이었다”고 했다.

●추억 속 학창시절…가볍게 가볍게

‘써니’는 2008년 코미디 ‘과속스캔들’로 데뷔한 강형철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다. 그는 ‘과속스캔들’에서 미혼모, 10대의 일탈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부담스럽지 않은 경쾌함으로 풀어내 830만 명 관객을 동원했다.

이런 입담은 ‘써니’에서도 여전해 80년대 여고생의 모습을 순정만화의 한 장면처럼 경쾌하게 그려냈다.

영화는 80년대 말이 배경. 전남 벌교에서 서울로 전학 온 여고 2학년생 나미(심은경)가 일종의 불량 서클인 ‘써니’를 만들고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다.

영화는 여고 시절과 현재의 모습이 자주 교차하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다. 가볍게 이야기를 풀어가며 웃음을 만든다. 각목을 들고 상대 클럽과 싸우는 모습이나 여고생 입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욕 세리모니’ 등 조금 유치해보이는 에피소드들이 천연덕스럽게 이어지는 것도 ‘써니’의 흥행 이유다.

심지어 영화는 80년대의 대표적인 시대상인 시위 현장의 모습도 대학생과 여고생들이 한 데 얽힌 코믹한 패싸움으로 살짝 비틀어 보여준다.

80년대 영화 속 장면을 패러디한 것도 ‘써니’의 볼거리. 특히 그 시절의 아이콘인 소피 마르소 주연의 히트작 ‘라붐’ 속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 남자주인공 김시후가 심은경에게 몰래 헤드폰을 씌워주고 노래를 들려주는 장면은 가장 큰 웃음을 이끌어낸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1980년대 ‘요정’ 소피 마르소가 주연한 ‘라붐’(위)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써니’의 한 장면(맨 위). 그 배경음악이 주는 매력도 그대로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21세기 소녀들의 80년대 여고생 연기
중장년층엔 향수, 젊은층엔 신선한 충격
여고생들의 맛깔스러운 ‘욕 퍼레이드’
패싸움으로 코믹하게 터치한 시위현장
80년대 히트작 ‘라붐’ 패러디 배꼽잡아

답 : 추억·웃음·음악

1등 공신은 ‘뮤직 파워’ 그때 그 음악 향수자극

영화 ‘써니’의 추억을 자극하는 중요한 장치는 바로 음악이다. 중장년층의 추억을 자극하는 음악을 통해 그때의 정서와 느낌을 되살린다.

찬란했던 여고시절, DJ 이종환을 “종환 오빠”라 부르고 팝스타 신디 로퍼는 “언니”였던 그들에게 영화에 등장하는 그때의 ‘팝송’과 가요는 저절로 멜로디를 흥얼거리게 만든다.

198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는 ‘써니’에는 당시의 히트곡들이 여러 곡 등장한다. 강렬한 댄스 비트와 독특한 음색이 인상적인 신디 로퍼의 ‘걸 저스트 원 투 해브 펀’(Girl Just Want To Have Fun)은 천방지축 여고생들의 발랄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종환 오빠”의 ‘밤의 디스크쇼’에서 흘러나오는 나미의 ‘빙글빙글’, 조덕배의 ‘꿈에’ 등은 라디오를 끼고 살았던 그 시대 십대 시절의 추억을 자극한다.

영화 ‘라 붐’의 주제곡인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Reality)는 로맨스의 상징과도 같고, 댄스 그룹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Touch By Touch)는 선생님 몰래 찾아들던 나이트클럽과 롤러장의 최고 인기곡이었다.

25년 만에 다시 모인 ‘칠공주’가 한 친구를 떠나보내며 함께 부르고 율동을 맞추는,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보니엠의 ‘써니’는 그 유쾌한 선율처럼 새롭게 만난 중년의 우정을 상징하며 어느새 감동의 멜로디로 다가온다.

‘써니’의 김준석 음악감독은 “추억과 향수를 표현하면서도 가사의 깊은 의미와 감성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음악을 골랐고 이는 추억 속 10대들의 감성을 그대로 자극하며 다시 한 번 가슴을 울리고 있다. 윤여수 기자

편집 | 양해진 기자 yhj@donga.com 트위터@e_joyful

임재범, ‘나가수’ 잠시만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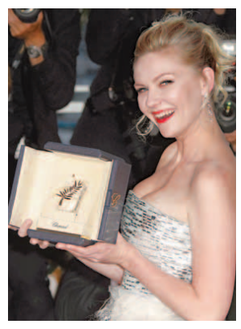
맹장수술 후유증 결국 경연 불참 3주 후 탈락자 빈자리 메울 수도

가수 임재범(사진)이 맹장수술 후유증으로 23일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 경연에 불참했다. 하지만 향후 그의 재출연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임재범은 23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MBC일산드림센터서 열린 ‘나는 가수다’ 녹화현장을 찾았지만 경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16일 맹장수술을 받은 임재범은 18일 퇴원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23일 오전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봤다. 결국 노래를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나는 가수다’ 하차를 결정했다. 그는 경연에 나서진 않았지만 제작진 및 출연가수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임재범은 경연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수술로 하차한 것이어서 향후 경연 탈락자가 나오면 그 자리에 투입되는 형식으로 재출연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제작진도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재범의 의견을 존중한다. 원한다면 출연할 기회를 열어두고 싶다”고 말했다. 3주 후 탈락자가 나오면 그 자리에 임재범이 다시 출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임재범을 대신해 JK김동욱이, 김연우의 빈자리는 옥주현이 각각 채웠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칸의 여인’은 커스틴 던스트



미국의 거장 테렌스 맬릭 감독의 ‘트리 오브 라이프’가 제64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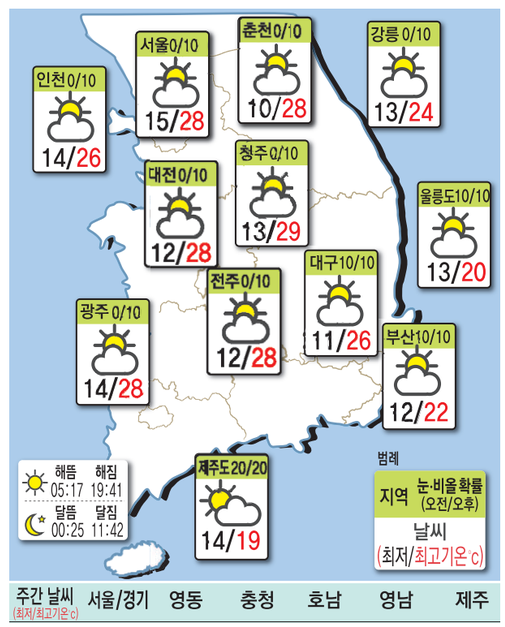
23일 오전(한국시간) 막을 내린 칸 국제영화제에서 브래드 피트와 숀 펜이 주연한 테렌스 맬릭 감독의 ‘트리 오브 라이프(Tree of Life)’가 최고의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았다.

또 이번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은 다르덴 형제 감독의 ‘더 키드 위드 어 바이크(The Kid with a Bike)’에 돌아갔다. 터키 누리 빌제 세일란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나톨리아(Once upon a time in Anatolia)’ 역시 심사위원대상을 공동수상했다. 감독상은 ‘드라이브’를 연출한 덴마크 니콜라스 빈딩 레픈 감독이 차지했다.

남녀주연상은 미셸 하자나비시우스 감독의 ‘아티스트’의 주연인 프랑스의 장 뒤자르댕과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에서 열연한 커스틴 던스트(사진)가 각각 영광을 안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

오늘의 날씨

5월 24일 화요일 (음력 4월 22일)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25일(수)	18/29	15/29	16/27	15/27	14/24	15/20
26일(목)	15/22	13/23	16/21	16/23	14/22	17/20
27일(금)	16/23	12/23	15/23	15/25	15/23	16/22

서태지 “추가소송 검토 중”

3차 변론준비기일 입장만 확인 후 30분만에 끝나

서태지가 전처 이지아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 취하 거부의사를 밝혔던 것에 더 나아가 추가소송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서태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의 강현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3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부동의 외에 추가 소송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소송 제기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이지아는 4월 30일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는 “본 사건은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려 한다”며 17일 부동의서를 제출해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소송을 취하하면 재산분할청구가 자동 종결되는 관행에 따라 50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은 종료되고 위자료 5억원에 관한 소송만 진행된다는 사항에 대해 강변호사는 “그건 알 수 없다. 아직 모른다. 상대측이 다시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서태지-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3차 변론준비기일은 법률대리인만 참석, 서태지의 부동의에 대한 이지아 측의 특별한 입장이 없어 그간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30분 만에 끝났다.

다음 준비 기일은 7월 4일로 정해졌다. 김원겸 기자

빅뱅, 4월 불법복제물 단속 1위…무려 4321건 적발

그룹 빅뱅(사진)이 4월 불법복제물 단속 통계 순위인 ‘웹보드 차트’의 가수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3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발간한 월간 ‘C STORY’에 따르면 지난달 온·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된 빅뱅의 노래는 ‘투나잇(TONIGHT)’ ‘카페(CAFE)’ 등을 중심으로 모두 4321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2위는 아이유, 3위는 SG워너비, 4위는 씨엔블루, 5위는 포미닛 순이다.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우)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발행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인		편집부	02 2020 1039
인쇄인	최맹호	스포츠1부	02 2020 1052
편집국장	이성춘	스포츠2부	02 2020 1051
광고국장	이승욱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사진부	02 2020 1068